

# 국토교통부, 추석 연휴 대비 비행안전 점검

## - 12일 김포공항 찾아 특별수송대책 점검·수도권 입출항 주요 항로 안전점검도 시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추석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9월 12일 오후 김포공항을 찾아 특별수송대책 등을 점검하고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하여 주요 항로와 공항상공의 비행점검을 시행하였다.
  - 국토교통부는 비행점검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국 민항공항, 군공항의 레이더, 계기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\*의 국제표준 성능 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.
    - \* 레이더 등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
-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연휴 특별수송대책을 보고 받으면서, “팬데믹 이후 늘어난 항공 수요에 대비하여 근무인력 보강, 임시주차장 확보 등 터미널 혼잡 관리와 난기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, 항공기 상시 점검 확대 등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”임을 강조하였다.
  - 특히 “최근 기내보안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항공사와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  - 그리고, 공항 여객터미널의 수화물 검색 직원 등 연일 폭염 및 풍수해 대응 등에 고생하고 있는 공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이어, 박 장관은 비행점검 항공기에 탑승하여, 수도권 입출항 주요 항로와 건설 중인 울릉도 공항과 대구·가덕도, 새만금 신공항 등 예정지 공역을 비행점검하였다.
  - 박 장관은 우리나라 하늘길 비행점검을 마치면서 “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,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,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”과 “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이더와 공항착륙시설 등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검사·관리하고, 비행 중 안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4. 9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